대장내시경(colonoscopy):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대장내시경은 얇고 유연한 카메라로 의사가 결장과 직장의 내벽 전체를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용종(polyp)이라는 혹이 암으로 변하기 전에 찾아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평균 위험군이고 결과가 정상인 사람은 보통 10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장내시경을 앞두고 있거나 받을지 결정하고 있는 모든 분을 위한 것입니다. 장 정결 준비, 검사 중에 일어나는 일, 얼마나 자주 다시 받는지, 위험, 비용을 다룹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장내시경은 의사가 **결장과 직장의 내벽 전체**를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사용하는 기구는 대장내시경 기구(colonoscope)로, 불빛, 카메라, 조직을 떼어 내는 작은 도구가 달린 얇고 유연한 관입니다. 이 관을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부드럽게 넣은 다음, 결장 전체를 따라 올려 보냅니다.

이 검사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용종(polyp)이라는 혹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문 중에 그것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용종은 여러 해에 걸쳐 천천히 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용종을 떼어 내면 암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한 번의 시술로 결장 전체에서 혹을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일반적인 선별검사입니다. (S상 결장경 검사(sigmoidoscopy)도 혹을 제거할 수 있지만, 결장의 아래쪽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준비하기: 장 정결

의사가 선명하게 보려면 결장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검사 전 하루 이틀 동안 다음을 하게 됩니다.

- 식단을 바꿉니다. 보통 검사 전날에는 맑은 액체만 드십니다
- 의료진이 지시하면 일부 약을 조절합니다
- 묽은 변을 보게 해서 결장을 깨끗이 씻어 내는 특별한 **장 정결제(bowel prep)** 를 마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 정결 준비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화장실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서 불편합니다. 그래도 깨끗한 결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장에 변이 남아 있으면 의사가 내벽을 선명하게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장 정결이 검사를 정확하게 만듭니다 — 지시 사항을 정확히 따르세요.

검사 중에는

검사 당일 대부분의 사람은 **진정제(sedation)** 를 받습니다. 긴장을 풀거나 얕게 잠들도록 돕는 약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거의 또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의사는 결장을 펴서 내벽을 더 잘 보기 위해 공기를 조금 부드럽게 넣습니다. NIDDK에 따르면 검사 자체는 보통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의사가 용종이나 다른 이상해 보이는 부위를 발견했나요? 그러면 대장내시경 기구를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떼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용종절제술(polypectomy)이라고 합니다. 떼어 낸 조직은 검사실로 보내져 현미경으로 살펴봅니다. 검사실에서는 비정상 세포나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정제 때문에 집까지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잠시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평균 위험군이고 대장내시경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10년마다** 검사를 다시 받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간격이 긴 이유는 대장내시경이 결장 전체를 검사하면서 용종도 함께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된 경우
- 가족 중에 대장암 병력이 있는 경우
- 린치 증후군(Lynch syndrome) 같은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의사는 더 일찍 시작하거나 더 자주 받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십 년이라는 표준 간격은 결과가 정상인 평균 위험군에게만 해당합니다 — 여러분에게 맞는 일정은 의사가 정해 줄 것입니다.

위험 따져 보기

대장내시경은 대체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혈**: 주로 용종을 제거한 후에 생깁니다
- 결장 벽의 **찢어짐(천공, perforation)**: 흔하지 않지만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적은 수의 경우에만 생깁니다. 의료진이 검사 전에 구체적인 위험을 설명해 줄 것이므로, 충분히 알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과 보험 적용

대장암 선별검사는 예방 서비스입니다. 많은 건강보험,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 Medicare는 이 비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아 두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이 다른 선별검사의 양성 결과에 대한 후속 검사이거나, 선별검사 중에 용종을 제거한 경우, 일부 보험사는 이를 진단 검사로 보고 비용을 다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 규정은 다양하므로, 내야 할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검사 전에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별 대장내시경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리고 용종이 발견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더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할 때

- **다음과 같은 경우 911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검사 후 복통이 심해지는 경우, 항문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또는 기절할 것 같거나 어지럽거나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의료진에게 전화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응급실로 가세요):** 혈변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 후 며칠 안에 열이 나는 경우. NIDDK에 따르면 출혈은 최대 2주까지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안에 의료진에게 전화하세요:** 더부룩함과 가스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 또는 부작용 때문에 예약 전에 장 정결제를 다 마시지 못하는 경우.

출처: NIDDK — 대장내시경(Colonoscopy) (niddk.nih.gov/health-information/diagnostic-tests/colonoscopy); NCI — 대장암과 용종을 찾아내는 선별검사 (cancer.gov/types/colorectal/screening-fact-sheet).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

이 글은 National Cancer Institute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용 내용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완전하고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교육 목적일 뿐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항상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National Cancer Institute: cancer.gov/types/colorectal/screening-fact-sheet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병원과 진료소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접수처에서 또는 진료 예약 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을 위해 가족이나 아이를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cancerexplained.org/languages/ko/colonoscopy

cancerexplained.org의 영어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출처와 대조하여 확인한 것은 영어판입니다.

교육용 정보일 뿐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AI의 도움을 받는 편집 시스템이 이 페이지 작성을 도왔습니다. 이름이 명시된 의학 검토자가 없는 한, 어떤 의학 검토자도 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없이 무료로 인쇄, 복사, 공유할 수 있습니다.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내용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출처: cancerexplained.org. 교육용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